



미 증시, 소비 둔화, 경기침체 우려로 하락세 지속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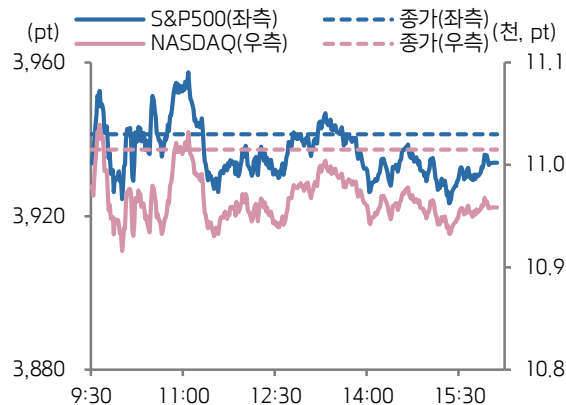
7 일(수) 미국 증시는 FOMC 를 앞두고 연준 긴축 경로 불확실성이 부각된 가운데, 중국 11 월 수출 지표 부진, 일부 기업 실적 부진 전망 등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하락 마감 (다우 0%, S&P500 -0.19%, 나스닥 -0.51%).

중국 11 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7%(예상 -3.9%, 전월 -0.3%) 감소하며 2020 년 2 월 이후 최대 감소폭 기록. 11 월 수입 역시 전년동기대비 -10.6%(예상 -7.1%, 전월 -0.7%) 2020 년 5 월 이후 최저치.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 급감 및 중국 방역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광저우와 상하이, 정저우 등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한 점이 원인으로 지목.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50bp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 목표치를 기존 3.75%에서 4.25%로 상향조정. 지난 7 월 100bp, 9 월 75bp 자이언트 인상을 단행한 이후 10 월에 인상 폭을 50bp 로 낮췄으며, 이번에도 동일한 인상 폭을 유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한 이전과 달리, 미래의 금리 결정은 향후 공개되는 지표에 달렸다는 발언을 통해 긴축이 막바지 단계에 근접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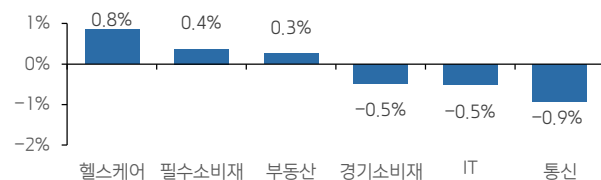
업종별로 헬스케어(+0.8%), 필수소비재(+0.4%), 부동산(+0.3%) 업종은 강세, 통신(-0.9%), IT(-0.5%), 경기소비재(-0.5%) 업종은 약세. 애플(-1.38%)은 전일 애플카 잠정 출시 날짜가 연기되었다는 보도에 이어, 모건스탠리에서 폭스콘 정저우 공장의 시위 사태로 인해 12 월 아이폰 출하량이 추가적으로 300 만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영향으로 약세. 테슬라(-3.21%)는 번스타인에서 수요둔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에서 추가적인 가격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4 분기 및 23 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영향으로 하락. 니오(-4.98%), 리오토(-2.21%), 샤오핑(-5.9%) 등 중국 전기차 업종 역시 코로나 제로 정책 완화에도 불구하고 동반 하락. 에어비앤비(-1.74%) 역시 모건스탠리에서 내년 여행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객실 공급 증가세가 둔화될 것을 근거로 투자 의견을 하향조정, 익스피디아(-6.32%), 트립닷컴(-6.41%), 부킹닷컴(-4.24%) 등 온라인 여행주 동반 약세.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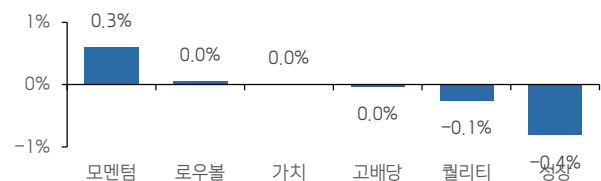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933.92	-0.19%	USD/KRW	1,322.15	+0.2%
NASDAQ	10,958.55	-0.51%	달러 지수	105.19	-0.37%
다우	33,597.92	+0%	EUR/USD	1.05	+0.37%
VIX	22.68	+2.3%	USD/CNH	6.96	-0.26%
러셀 2000	1,806.90	-0.31%	USD/JPY	136.60	-0.29%
필라. 반도체	2,673.25	-0.01%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767.89	-0.94%	국고채 3년	3.678	+4.6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530	+2.5bp
Eurostoxx50	3,920.90	-0.46%	미국 국채 2년	4.262	-10.4bp
MSCI 전세계 지수	618.82	-1.26%	미국 국채 10년	3.422	-10.9bp
MSCI DM 지수	2,662.07	-1.27%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972.93	-1.15%	WTI	72.34	-2.57%
MSCI 한국 ETF	57.39	+0.54%	금	1798.9	+0.9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4%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59%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1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14.2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차주 CPI 및 FOMC 경계심리 유입 가능성
2.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현선물 수급 변화
3. 위메이드 상장 폐지에 따른 관련 게임주들의 주가 변동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현재 주식시장은 미국의 경기 침체 강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가운데, 그 강도를 가늠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차주 CPI와 FOMC를 앞두고 경계심리가 짙어지기 시작한 모습. 현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중앙은행의 대응 방법은 금리인상 등 긴축이며, 그 과정에서 수요가 억압됨에 따라 소비, 생산 등 실물 경제 둔화가 불가피해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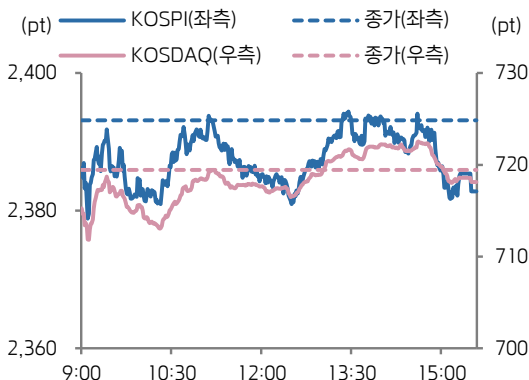
관건은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의 강도이며, 이는 향후의 인플레이션 레벨과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고금리 유지 기간이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11 월 CPI(컨센 7.5%, 10 월 7.7%)에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내려갈지, 또 12 월 FOMC 에서 연준의 향후 금리 인상 속도 및 최종금리 레벨이 어느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전망 변화가 연말 산타렐리 여부 등 12 월 남은 기간 동안의 증시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발 경기침체 불안, 중국 수출입 지표 쇼크, 제로코로나 완화 수혜 업종들의 차익실현 물량 등으로 하락 마감(코스피 -0.4%, 코스닥 -0.2%). 금일에도 미국 증시 약세 속 차주 대형이벤트를 앞둔 경계심리,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현선물 수급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예상. 업종 단에서는 유통량 위반 문제 등으로 인한 가상화폐 위믹스(오전 7 시 업비트 시세 기준 -70%)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는 점을 고려 시, 관련 게임주들의 투자심리 악화에 유의할 필요.

한편, 전일 중국 국무원에서 PCR 전수조사 폐지, 격리 규제 완화를 포함해 제로코로나 방역 해제 속도를 가속화한 상황. 주요 외신에서도 방역해제와 동시에 중국 당국이 '23 년 성장률을 5% 내외로 설정할 것이고 언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본격적인 부양 기조 전환(or 성장 초점)은 전세계 경기 침체 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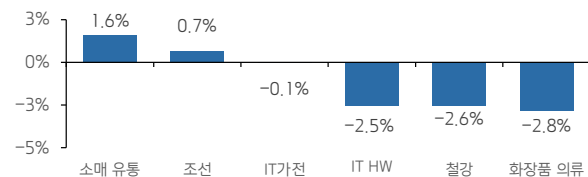
이처럼 경제 관점에서는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소비 반등은 반길만한 일이긴 하지만,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이를 이미 지난주부터 주가에 반영해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리오프닝 기정사실화에 따른 증시 내 재료 소멸 인식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일에 이어 단기적으로 화장품, 여행, 이류 등 관련 업종 및 종목군들의 차익실현 물량 출회에 대비하는 것이 적절.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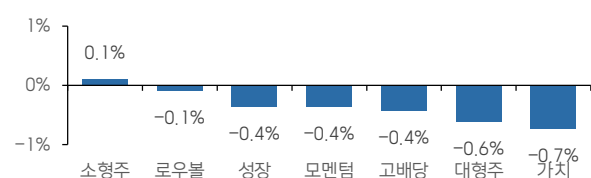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E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